

김성환의 비디오-로망 전시에 불허

이영철 Young Chul Lee (미술 평론가)

김성환은 지적인 사고와 흥미로운 발상, 비디오 아트의 특성을 고전부터 충실하게 연구한 신인 퍼포먼스 비디오 아티스트이다. 서울대 건축과 재학시 도미하여, 미국의 명문 사립 대학과 대학원에서 수학, 건축학, 미술을 공부한 후 한국에서 첫 전시를 갖는다.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그는 진지한 '연구 보고' 형식으로 개인전의 기획 자체를 새롭게 하고 있다. 기존의 비디오 아트 세대와 신진 세대의 사이에 자신을 위치시켜 현재성과 역사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새롭고 신뢰감을 준다. 김성환은 자신의 작품인 〈A-DA-DA (2002)〉와 〈her (2003)〉 외에 그의 하버드 대학과 MIT 대학의 스승인 존 조나스, 조 기본스, 그리고 친구인 니나 유엔의 작품을 함께 선 보인다. 존 조나스는 1960년대 구미 비디오 아트를 대표하는 인물 중의 한 사람으로 최근 카셀 도큐멘타 11에 참여했다. 조 기본스는 현재 MIT 대학 교수로 미국의 실험 영화들을 만들었고 수차례 휘트니 비엔날레에 소개된 적이 있고 로데르담 영화제에 참가했다. 그리고 니나 유엔은 하버드 학부를 졸업한 하와이 출신의 젊은이로서 기존 세대와는 다른 참신한 작품 활동을 한다. 그는 국내에도 잘 알려져 할 하트리 감독이나 다른 미국의 저명 예술인들에게 제2의 제인 캠퍼온(오스트렐리아 출신 여성 영화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하와이 출신의 이국적 미학을 독특하게 표현하는 작가이다. 김성환 외에 3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보게 되면 각기 다른 세대들의 비디오 아트의 특성들을 간파할 수 있고, 퍼포먼스 비디오 아트를 구성하는 방식의 어떤 전형들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김성환은 자신의 연구에 자극이 되는 40여 명의 비디오 아티스트와 영화 감독들의 작품들을 자료로서 준비했다. 그 중에 프랑스의 영화 감독 크리스 마커(chris marker)에서부터 비디오 아티스트 게리 힐, 세이디 베닝, 소피 칼이 있고 히츠콕과 같은 상업 영화 감독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의 개인전에 초대된 다른 작가들의 작품들은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김성환의 작품에 링크되어 있다. 하나이면서 다수가 되는 마술적(magic) 공리의 압축화(consolidation). 이 전시 방식에 대해 작가는 말한다. "혹자는 온 세계가 한 사람의 뇌 안에 모두 들어있다고 말하기 쉬우나,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뇌는 세계의 수많은 물건들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기에 개인전을 하는 작가는 전시장 내에 자신의 작품만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작품도 사회의 산물에 불과함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변 세계를 같이 보일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뇌-물건-세계-작품-사회는 모두 연결된 '하나의' 기계이다. 그의 생각은 이 기계 속을 가로지르는 앗상을 라주 컨버터와 같다. 이 컨버터는 안과 밖, 현실과 비현실, 개인과 역사의 구분을 강제해온 사회 이면의 스킴(schizo) 상황을 가로지른다는 점에서 언어 과잉이면서, 코드가 탈구되고 불일치하는 점에서 반복적인 말더듬기이

다. 김성환은 말이 아직 안된 말을 말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개인전 주제를 "아-다-다다." 라 했다. 문학과 달리 영상으로 "글을 쓴다"는 것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일종의 말더듬기에 불과하다. 조안 조나스와 조 기본스의 작품은 현실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보다 말더듬기를 통한 소통 방식의 좋은 사례들을 제시해준다. 김성환은 실험된 사례 연구를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말을 거는 방식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사는 한국의 젊은 작가로서 경험하고 부딪히게 되는 많은 사실들, 의문들에 대해 그는 솔직하고 과감하게 접근하며, '사유 실험'의 과정 자체를 드러낸다. 1960년대 이후 비디오의 대중적 보급화, 그리고 90년대 이후 비디오 편집의 디지털화를 통해 영상 매체는 마치 연필, 펜이나 타자기와 같이 개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이는 비디오가 새로운 사고와 감각을 기술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표현 매체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상업화로 치달는 사회 문화 구조에 맞서는 새로운 효과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아-다-다다." 전은 비디오 아트의 이러한 측면을 활용한 개인적인 영상 에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시각 이미지의 효과나 설치 연출에 치중하는 비디오 아트를 피하고 '서사성'과 역사 의식, 그리고 수행성(performativity)을 자신의 작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있다. 〈그녀를(Her)〉에서 그는 미국 여성과의 상상적 관계를 허구적으로 다루며 전쟁에 대한 소설을 쓰고 있다. 여기서 그는 전쟁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으면서 전쟁을 메타포로서 다룬다. 그의 비디오 문학 기계는 남녀간의 사랑의 불일치와 상상적 일치 사이에 개입하는 외부 세계의 힘들을 반복적으로 암시함으로써 사랑 기계이면서 동시에 전쟁 기계를 표현한다. 두명의 비디오 아티스트(남성과 여성)는 상호주관성과 공존가능성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들은 작품에서 동시에 그리고 번갈아가면서 배우, 나레이터, 카메라맨, 인터뷰어, 편집자 모두가 된다. 이런 구성 장치를 통해 픽션과 논 픽션, 남성/여성 관점, 주체와 대상 사이의 경계들이 뒤섞이며 둘의 대화에 누화(crosstalk)가 발생한다. 결국 이 실험을 통해 사랑은 두 사람이 두개의 몸으로 분리되었음을 인정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그가 알게 되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그의 안에 처음부터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로서 인간 관계라는 설정은 무너진다. 남는 것은 힘들의 관계, 포획과 침략 관계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삽입하는 남성으로 남아 보는 이에게 전쟁이라는 메타포를 떠올리게 한다. 여기서 '그'라는 인물은 서구적 전통의 이성주의와 경험주의에 의해 가공된 존재이다. 2002년 작품 〈A-DA-DA〉의 끝머리에는 판소리 심청가의 눈과 말러 교향곡이 함께 들린다. 그는 회의한다. "이때 한국 일반 대중이 수용할 수 있는 말러 교향곡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2003년 작품 〈Her〉를 '그녀'라고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그 '그녀'가 주어형이 아닌 목적형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할까?" 그는 2004년부터 2년간 암스텔담 소재 리스아카데미(rijksacadmie)에서 퍼포먼스와 영상 매체를 연구하기도 되어 있다. 연구과제는 지금부터 백년전 미국 유타 길에 오른 (서유견문)의 저자 유길준에 대한 전기와 자신의 개인적 삶의 픽션과 논픽션을 연관시켜 지난 세기 동안 발달해 온 영화사와 문학, 퍼포먼스, 미술 언어를 연결시켜보는 작업이다. 그의 치열한 문제 의식과 강렬한 의욕에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